

# “쿠팡, 집단감염 책임져라”...위자료 소송

###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 쿠팡에 위자료·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 “코로나 감염 알 수 있었는데 대비 안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쿠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2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쿠팡 피해자모임은 “일일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배상해달라는 취지다. 통상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등이 그 대상

이 된다. 피고는 주식회사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원고는 쿠팡에서 일한 노동자 및 그의 가족 등 11명이다. 모임은 “지난 5월24일 피고들은 복수의 확진자가 부천센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업장 일부만 소독하고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 업무를 불과 4시간 만에 정상가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다음날인 25일에도 추가 확진자가 또 발생했음에도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확진자의 기초적인 동선이라도 알려달라, 대비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확진자의 동선은 개인정보라서 알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및 피해자지원대책위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집단민사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줄 수 없다. 당신은 밀접접촉자가 아니니 안심하고 일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5월25일 근무자 중에도 대거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밀접접촉자가 아니라고 한 대답도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은 노동자들이 부천센터에서 집단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기

본적인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부천센터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원했지만 (쿠팡 등은) 책임을 회피했다. 지금도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불안해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 광주 공공시설 옥상서 추락한 고교생 1명 숨져

광주의 한 공공시설에서 추락한 고등학생 1명이 숨졌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4분께 남구 모 공공시설 7층 옥상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18)군이 2층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해당 공공시설에는 입·출입을 상시 관리하는 책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도 출입을 통제하는 잠금 장치는 따로 없는 상태다. 경찰은 A군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광주 아파트서 불...2명 화상·9명 연기 흡입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1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29일 낮 12시4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15층 규모 아파트 11층 세대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화상을 입었고 9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 10살 여아와 8차례 성관계한 40대 남성 '징역 7년'

10살에 불과한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호감을 산 뒤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 한 편의점 인근 빈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시 10살에 불과한 피해자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A씨는 현금 1만원을 주며 호감을 산 뒤 몸솔짓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만 11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C양이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하자 대신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갑을 구입해주기도 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4개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집과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법 위반 48개 업체 60건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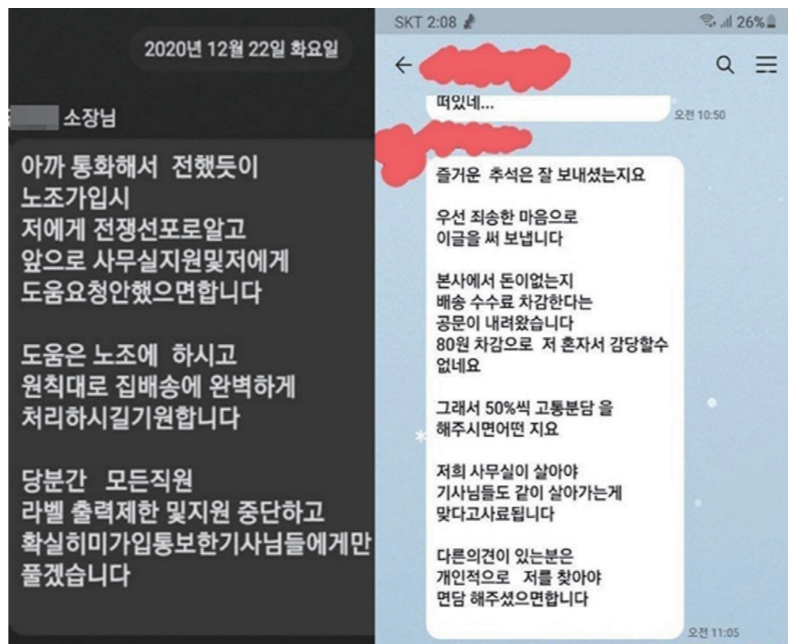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제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178곳을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벌인 결과, 48개 업체에서 60건의 환경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조업 7건, 무허가 대기배출 시설 운영 5건이다. 이 밖에 ▲공기희석 배출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배출 시스템 입력 누락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각 1건 등이다. 환경청은 위반 정도 등을 수사에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 하도록 했다. 환경청은 지난 9월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 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오염도 조사도 병행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탄 환경 오염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해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노조 가입은 전쟁선포”...제주 롯데택배 대리점 갑질

### 일방적 수수료 삭감도 문제 제기...‘고통 분담’

제주 롯데택배 한 대리점 소장이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전쟁’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제주지부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롯데택배 제주지회가 설립되자 지점과 대리점 소장들은 한 밤에 비상회의를 열고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한 대리점 소장인 A씨가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은 전쟁 선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돌렸다는 것이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사무실 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움은 노조에 요청하고, 당분간 모든 직원의 지원을 중단하고, 노조 미가입 통보를 한 기사에게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조 지부는 “노조에 가입하면 대리점의 모든 비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동안 지급하던 지급품들도 안 주겠다는 건 A씨가 노동자들에게 공갈 협박하는 것이다”며 “이 문자메시지는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며 불법행위의 증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24일은 배송수수료가 통장에 찍히는 날이었는데, 수습만원씩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개별 동의 절차도 없었고, 2년간 유지돼야 할 계약 내용이 변경된 일도 없는데, 배송 한 건당 40원씩을 삭감하고 지급했다는 문자 통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노조 가입은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택배 기사들과) 형, 동생하는 가족 같은 사이인데,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해명했다. 수수료 삭감에 대해서 A씨는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온 뒤 직원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며 “내년 1월1일 휴일에 전 직원들과 함께 모여 얘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